

# 장성군 미래농업 준비 '착착'...청년부농 전망 밝다

### 농기센터 직원역량강화 보고회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착공 청년농업인 육성·창업 활성화 안평쌀 재배 추진 현황 등 공유

장성군의 미래농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관련 산업의 여건도 좋아지면서 부자 농촌을 향한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농업인회관에서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직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역량 강화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건립과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현황을 공유했다.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는 아열대작물 재배

기술의 체계적인 실증과 확산기반 운영,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 국가기관이다. 삼계면 상도리 일원에 건립되며, 오는 9월 4일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청년농업인은 49세 미만 지역 농업인으로, 장성 농업인의 9.2%를 차지한다. 군은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정예인력양성 전문교육 ▲창업 활성화 지원 등 9개 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고 있다. 안평쌀 재배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장성군이 전남 최초로 단지화해 시범재배 중인 '안평쌀'은 지난해 조곡 138톤 분량을 생산했으며, 미국 텍사스에 수출하는 등 판로 확대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특화작물 재배 추진현황도 이목을 끌었다. 장성군이 신소득 아열대작물로 육성 중인 레몬은 삼서면 재배단지에서 12농가가

3.8ha 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경옥고'의 주원료로 알려진 약용작물 지황은 북하면 일원에 재배단지 조성돼 있으며 13농가 8.1ha 규모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내 첨단농업기술관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현황도 보고됐다. 지역 내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공급되는 장성 농산물의 잔류농약 사전 검사·분석을 수행하는 곳으로, 내년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 외에도 챔버형스마트팜교육실증센터 건립 공모, 귀농귀촌체류형지원센터 공모 추진 계획 공유와 분야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중장기 발전 방안 도출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보고회가 장성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김한중 장성군수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직원역량강화 보고회'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지난 24일 함평 사인머스켓 재배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인머스켓 캄보디아 수출을 위한 상차식이 열렸다. <함평군 제공>

## 함평산 사인머스켓, 홍콩·베트남 이어 캄보디아 5t 수출

### 동남아 등 해외 시장 개척 박차

함평군은 특화작물 사인머스켓 포도 5t을 캄보디아에 수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캄보디아 수출은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이은 것으로 동남아에 함평산 포도를 수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함평산 사인머스켓은 평균 당도 17브릭스(Brix) 이상의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선별해 캄보디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종합농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해 왔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농약 잔류 문제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을 하는 등 제품 관리에 힘쓰고 있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국내 사인머스켓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판로 개척이 절실하다"며 "함평 사인머스켓 포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판촉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 강진군 병영면 도시재생 협동조합 설립 설명회

### 10월까지 기본교육·비즈니스모델 컨설팅...내년 상반기 창립총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전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설립절차 등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최근 병영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마을조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다양한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사업체로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둔 마을관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국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설명회는 마을조합의 필요성과 역할, 향후 국토교통부 설립 인가를 위한 주요 요건 등 전반적인 내용 설명에 이어 앞으로 진행할 교육과 컨설팅 일정을 공유했다. 강진군은 병영면 도시재생 마을조합이 내년 상반기 창립총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생활 인프라를 유지·관리하는 등 주민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7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총 8회에 걸쳐 마을조합 설립 기본교육과 사업별 비즈니스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컨설팅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장성사랑상품권 추석맞이 15% 할인...구매한도 100만원

### 지류형 기존 10% 할인을 유지

장성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9월1일부터 30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행사 기간 카드형 상품권은 15% 할인이 적용된다. 지류형(종이) 상품권은 기존처럼 10% 할인을 유지한다.

개인 상품권 구매 한도도 상향했다. 기존엔 50만원으로 제한했으나 카드·종이 상품권 모두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44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종이형 장성사랑상품권은 농협, 광주은행, 신한 등 지역 23개 판매대행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은 휴대전화 앱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을 설치한 후 발급·충전

하거나 판매대행점에서 구입과 충전을 할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장성사랑상품권 한시 할인율·구매 한도 상향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며 "지역화폐 이용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화순군,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 수강생 모집

### 수질보호·정리수납 등 3개 강좌

화순군이 오는 30일까지 '2024년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양성과정은 군민들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퍼스널 컬러 진단 전문가 과정, 수질보호 전문가 과정,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세 가지 핵심 강좌로 구성돼 군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로 진행된다.

모든 과정은 19세 이상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로 제공된다. 단, 자격증 발급에 사용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강 신청은 화순군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평생학습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이번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군민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추후 화순군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담양군, 대전면 이장 27명 '생명지킴이' 교육

### 자살 예방 '보고 듣고 말하기' 진행

담양군이 지난 23일 대전면 이장 27명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에 처한 대상자(고위험군)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생명지킴이 교육은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보고 듣고 말하기'란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보고', 죽음의 이유를 적

극적으로 '듣고', 자살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와주기 위한 '말하기'를 말한다. 담양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마을 사정에 밝은 이장과 함께 농약의 오남용 주의에 대한 교육 및 방송을 진행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생명지킴이 교육을 추진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마을 사정에 밝은 이장을 생명지킴이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생명사랑 안심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함께 걸으며 치매 극복해요"

### 장흥군 치매극복의 날 기념 다음달 1~14일 걷기 행사

장흥군이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2024년 치매극복의 날 기념 걷기행사'를 진행한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방법은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앱을 설치 후 '장흥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웰린지 신청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걷기 챌린지가 진행되는 14일간 목표 걸음 수 10만보를 달성한 참가자에게는 선착순 700명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걷기 생활화로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



2024년 치매극복의 날 기념 걷기행사 포스터. 을 형성하길 바란다"며 "치매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